

결혼이민자 주부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 및 인지도 조사

민경애 · 강정민 · 정희선*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식생활문화전공

A Study on the Knowledge of Immigrant Housewives on Infant Weaning

Kyung-ae Min, Jung-min Kang, Hee Sun Jeong*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As the public is already aware, baby foo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 baby'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t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choice of baby food forms proper eating habits, which will affect health in the future. In particular, recognition of appropriate baby food by the mother or the primary care provider is even more important.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matter for domestic housewives,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married immigrant housewives whose numbers are increasing every year.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cogn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baby food preparation by mothers living in Gangwon Province with children 6 to 36-months-ol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baby food by immigrant housewives given that they were raised in different environments with different eating habits and child raising norms. And additional purpose was to provide proper educational material and direction for choosing appropriate baby foo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and age of the mother. Moreover, the results showed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baby food but a high desire for education, as mothers did not receive enough support from society. Therefore, necessar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ystematically after mothers fully learn to communicate in Korean. These mothers need continuous attention and support, so they can settle in this country as wives, daughters-in-law, and mothers. Moreover, the needed profession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mothers can learn traditional Korean eating habits and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culture and environment between countries. As the selection of baby food forms the basis of future eating habits and the foundation for good health, proper education should be available to establish healthy intercultural familie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housewives, baby food, eating habits, proper education

1. 서 론

영유아는 생후 1개월 이후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로 이 시기에 영양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발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므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ikafunda 등 1998; Briley 등 1999; Robert 등 2000). 이러한 영향은 성인인 된 후 질병과도 관계가 있다(홍 1997). 특히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커서 다량의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데 소화기의 구조와 기능이 미숙한 생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김 2002). 또한 이유식 시기에는 모유 또는 조제분유에만 의존하던 영아가 새로운 여러 가지 식품의 맛과 질감을 접하게 되는 시기로 이때 적절하고 다양한 이유식의 선택과 제공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유식을 실시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비만이나 알레르기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가 늦으면 빈혈발생 및 발육부진 등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식품 섭취가 어려워지기 쉬우며 이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Formon 1993). 그러므로 이유식은 영유아의 성장속도와 신체기능 및 생리적 발달에 맞추어 적절하게 시작되어야 한다(Lee 등 2005).

영유아는 어른과 달리 자기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므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지식 및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Kim 2001). 그러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Lee 등 2005).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유식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상적인 이유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Barnes 1990). 때문에

*Corresponding author: Hee Sun Jeong,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angwon-gil, You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82-2-2077-7548 Fax: 82-2-2077-7140 E-mail: sunnyj@sm.ac.kr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이유식에 관한 교육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Kim 등 2005) 전문가에 의한 이유식교육은 부족하고(Kim 2001; Hwang 2002; Kim 2005)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소 등에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중이고(Lee 2003) 모자보건실에서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시로 모유수유, 이유식 등을 교육상담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각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 생활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주부들의 경우는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을 기피하는 한국여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농촌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Hwang 2008) 강원도 농촌지역의 국제결혼도 매년 증가하여 강원도 18개 시군에 3,047명의 결혼이민자가 정착하고 있다(강원도청 2008). 더욱이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언어는 물론 문화, 생활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녀 양육 환경의 취약으로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지 2007).

여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방문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언어교육은 물론 출산, 양육지도, 관리 등 방문 지도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유식과 관련하여서는 그 자료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와 실태를 파악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등 일부지역의 결혼이민자 주부들 중 생후 6개월에서 만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춘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보건소, 양구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록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포하여 부정확한 설문지를 제외한 8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식과 관련된 선행연구(Lee 2002; Kim 등 2005; Yoon 2007)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으며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사항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은 연령, 남편의 연령, 출신국가, 어머니가 처음 먹었던 이유식종류, 종교, 학력, 직업, 아기의 나이, 아기 성별, 출산시 분만 방법, 자녀수, 수유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이유식 실천사항

실제로 이유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묻는 질문으로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 이유식을 시작한 이유, 처음 먹인 식품(처음 먹인 과일, 처음 먹인 채소, 처음 먹인 육류), 이유식의 형태,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경로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이유식에 대한 지식 정도

어머니들의 이유식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유식의 실시목적, 이유식 시작 시기, 아기에게 부족한 영양소, 이유식 양념, 이유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이유식 교육 시 필요정보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3.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인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유식 실태와 이유식에 대한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주부 본인 연령은 20세 이상~25세 미만인 41.5%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30세 미만 35.4%, 35세 이상~40세 미만 12.2%, 30세 이상~35세 미만 11.0%였으며, 남편의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 64.6%, 20세 이상~30세 미만 31.7%, 40세 이상~50세 미만 3.7%로 각각 분포하였다.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 국적의 주부들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 29.3%, 일본이 14.6%,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국적의 주부들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y		N(%)	
Age of mother	20~24 years	34	(41.5)
	25~29 years	29	(35.4)
	30~34 years	9	(11.0)
	35~39 years	10	(12.2)
Age of husband	20~29 years	26	(31.7)
	30~39 years	53	(64.6)
	40~49 years	3	(3.7)
Nationality	Vietnamese	32	(39.0)
	Philippine	24	(29.3)
	Japanese	12	(14.6)
	Other	14	(16.1)
Baby food consumed by mother	Grains	53	(64.6)
	Fruit puree	15	(18.3)
	Fesh milk	4	(4.9)
	Meat and fish	10	(12.2)
Religion	Buddhist	11	(13.4)
	Protestant	30	(36.6)
	Catholic	15	(18.3)
	Unification Church	10	(12.2)
	Other	9	(11.0)
Education	None	7	(8.5)
	Less than high school	16	(19.5)
	High school	54	(65.9)
University education	12	(14.6)	
	No	77	(93.9)
Job	Yes	5	(6.1)
	Age of child	less than 12 months	9
12~23 months		40	(48.8)
24~35 months		26	(31.7)
36 months or above		7	(8.5)
Gender of child	Male	32	(39.0)
	Female	50	(61.0)
Child's delivery method	Non-surgical	65	(79.3)
	Cesarean	17	(20.7)
Number of children	1	53	(64.6)
	2	23	(28.0)
	3 or more	6	(7.4)
Breast feeding (up until 6 months)	Yes	43	(52.4)
	No	9	(11.0)
	Mixed	30	(36.6)
Total		82	(100.0)

니가 먹었던 대표적 이유식 종류는 곡류죽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과일즙이 18.3%, 고기와 생선류가 12.2%, 생우유가 4.9%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36.6%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18.3%, 불교 13.4%, 통일교 12.2%, 기타 11.0%, 무교 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65.9%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14.6%, 고졸 미만 19.5% 순이었다. 직업은 없다는 응답이 93.9%, 있다는 응답이 6.1%로 각각 나타났고, 아이 연

령은 12~24개월 미만 48.8%로 가장 많았으며, 24~36개월 미만 31.7%, 12개월 미만이 11.0%, 36개월 이상 8.5%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 성별은 남아가 39.0%, 여아가 61.0%로 나타났고,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79.3%, 수술분만이 20.7%로 각각 분포하였다. 자녀수는 1명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8.0%, 3명 이상이 7.4% 순이었다. 6개월까지 수유방법은 모유수유가 52.4%로 가장 많았고, 혼합수유 36.6%, 분유 11.0% 순으로 분포하였다.

2. 이유식의 실천사항

1)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유아에게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6~8개월 미만에 시작한 주부들이 53.7%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미만이 37.8%, 8개월 이상이 8.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이유식 시작 시기는 25세 이상 주부들이 25세 미만 층에 비해 이유식을 다소 일찍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고, 국적별로는 일본국적의 주부들의 58.3%가 6개월 이전부터 이유식을 많이 시작하여 다른 국가 주부들에 비해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주부들은 28.1%가 6개월 이전에, 15.6%는 8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 층은 83.3%가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한 반면, 고졸은 37.0%, 고졸 미만은 6.3%만이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였고, 고졸 미만 학력 층의 경우 31.3%가 8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로 이유식의 시작시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유시기와 관련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WTO와 UNICEF에서는 아기의 체중이 출생 시의 2배가 되는 6kg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이유 시기라 하여 이때 이유를 권장하고 있다(Beauchamp 등 1995).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미국 영아들의 이유식 시작 시기는 생후 5~6개월에서 생후 6주 또는 그 이전으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임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 후 1975년도 연구보고 결과에서는 대다수의 미국 영아들이 생후 4주 이전에 이유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omom 1974). 1995년 스코틀랜드의 정부조사에서는 64%가 3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였다는 보고가 있고(Foster 등 1997) 2000년에는 3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비율이 28%로 줄어들었으나, 50% 이상이 4개월 이전에 고형식을 주었다(Hamlyn 등 2001)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의 연구에서는 이유식 시작시기가 평균 6.1개월이었으나, 1980년대 4.7개월이던 것이 1990년대 들어와 평균 4.3개월로 점차 빨라졌다(Ahn 1999).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유 보충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유시작 시기가 4~6개월 정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지나친 조기 이유는 비만이나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다고 하며, 반면 이유의 지연은 신체의 성장저하, 빈혈 등 영양실조를 야기한다

<Table 2> Start of solid food consumption

Category	Onset of solid food consumption N(%)				$\chi^2(p)$	
	Below 6 months	6~8 months	Over 8 months	Total		
Age of mother	20~25 years	11(32.4)	20(58.8)	3(8.8)	34(100.0)	1.140 (.888)
	25~30 years	12(41.4)	14(48.3)	3(10.3)	29(100.0)	
	30 years and over	8(42.1)	10(52.6)	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9(28.1)	18(56.3)	5(15.6)	32(100.0)	6.197 (.402)
	Philippine	9(37.5)	14(58.3)	1(4.2)	24(100.0)	
	Japanese	7(58.3)	5(41.7)	0	12(100.0)	
	other	6(42.9)	7(50.0)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6.3)	10(62.5)	5(31.3)	16(100.0)	26.582*** (.000)
	high school	20(37.0)	32(59.3)	2(3.7)	54(100.0)	
	university	10(83.3)	2(16.7)	0	12(100.0)	
Total		31(37.8)	44(53.7)	7(8.5)	82(100.0)	

***p<.001

다(Kim 등 2009). 서울지역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Kim 2001)에 의하면 4~6개월이 65%이었고, 대구지역 2세 이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5~6개월이 가장 많았으며(Hwang 2002), 청주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6개월이 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5).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4개월에 이유 준비기를 거쳐 6개월 무렵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권유하고 있다. 이유식을 생후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6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에 비해 아기의 성장에 더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는 6개월 이전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 질병감염률이 적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기의 성장 발달과 모유의 조성으로 볼 때 6개월 무렵부터는 수유만으로 부족한 영양이 이유식으로 보충되어야 한다(세계보건기구 1998).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에는 이유식은 아기가 생후 5~6개월이 지나면 엄마젖이나 우유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으므로 고형음식을 먹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유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유식은 생후 5~6개월, 체중이 적어도 6~7kg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연구 결과, 반 이상의 결혼이민자 주부들은 적절한 이유식 시작시기를 6~8개월 미만으로 응답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으나, 4~6개월 미만 37.8%, 8개월 이상이 8.5% 등 적지 않은 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구체적으로 이유식을 일찍 시작했을 때와 너무 늦게 시작할 경우의 우려 등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무엇보다도 아기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이유식 시작 동기

유아에게 이유식을 시작한 이유는 <Table 3>과 같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한 주부들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가 26.8%, 모유의 양이 부족하여가 23.2%, 의료인의 권유 등 기타 응답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이유식을 많이 시작하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일본주부들의 경우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가 66.7%로 다른 국적의 주부들에 비해 매우 많았으며, 베트남(43.8%)과 필리핀(41.7%), 기타국적(42.9%)의 주부들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이유식을 시작한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이유식을 시작한 이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주부들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이유식을 많이 시작한 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부들의 경우 Lee(2002)의 연구에서는 이유식을 시작한 동기로는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73.3%로 가장 많았고, 주변사람이나 전문가의 권유가 8.8%, 아기가 먹으려하기 때문에 8.2%, 수유량 부족 7.3%, 기타 순이었다. Lim(2000)의 연구에서도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61.1%로 가장 높았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아기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이유식을 한다는 응답이 23.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최근에는 어머니들의 이유시작 동기가 아기의 요구나 입장보다는 영양을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Lee 2002).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국적과 연령 등이 다양하고 이유식에 대한 인지도나 지식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현실에서

<Table 3> Reason for starting solid food consumption

Category		Reason for starting solid food consumption N(%)				Total	$\chi^2(p)$
		Lack of mother's milk	Recommended by third party	Request by child	Other		
Age of Mother	20~25 years	7(20.6)	16(47.1)	8(23.5)	3(8.8)	34(100.0)	3.402 (.757)
	25~30 years	8(27.6)	10(34.5)	7(24.1)	4(13.8)	29(100.0)	
	30 years and over	4(21.1)	5(26.3)	7(36.8)	3(15.8)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5(15.6)	14(43.8)	8(25.0)	5(15.6)	32(100.0)	17.167* (.046)
	Philippine	8(33.3)	10(41.7)	4(16.7)	2(8.3)	24(100.0)	
	Japanese	1(8.3)	1(8.3)	8(66.7)	2(16.7)	12(100.0)	
	other	5(35.7)	6(42.9)	2(14.3)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5(31.3)	7(43.8)	2(12.5)	2(12.5)	16(100.0)	10.869 (.092)
	high school	11(20.4)	23(42.6)	16(29.6)	4(7.4)	54(100.0)	
	university	3(25.0)	1(8.3)	4(33.3)	4(33.3)	12(100.0)	
Total		19(23.2)	31(37.8)	22(26.8)	10(12.2)	82(100.0)	

*p<.05

<Table 4> Choice of first solid food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food N(%)			Total	$\chi^2(p)$
		Porridge	Commercial baby food	Fruit puree		
Age of mother	20~25 years	30(88.2)	1(2.9)	3(8.8)	34(100.0)	14.777** (.005)
	25~30 years	21(72.4)	0	8(27.6)	29(100.0)	
	30 years and over	8(42.1)	2(10.5)	9(47.4)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27(84.4)	2(6.3)	3(9.4)	32(100.0)	7.575 (.271)
	Philippine	15(62.5)	1(4.2)	8(33.3)	24(100.0)	
	Japanese	8(66.7)	0	4(33.3)	12(100.0)	
	other	9(64.3)	0	5(35.7)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62.5)	2(12.5)	4(25.0)	16(100.0)	9.777* (.044)
	high school	43(79.6)	1(1.9)	10(18.5)	54(100.0)	
	university	6(50.0)	0	6(50.0)	12(100.0)	
Total		59(72.0)	3(3.7)	20(24.4)	82(100.0)	

*p<.05, **p<.01

주변사람들이나 아기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음 먹인 식품

아기에게 처음 먹인 식품은 <Table 4>와 같다. 미음이나 죽을 먹인 주부들이 7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즙이 24.4%, 시판 이유식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5세 미만은 88.2%, 25~30세 미만은 72.4%, 30세 이상은 42.1%가 미음이나 죽을 이유식 시작할 때 처음 먹인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즙은 25세 미만이 8.8%, 25~30세 미만이 27.6%, 30세 이상은 47.4%가 처음 먹인 식품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미음이나 죽을, 연령층이 높을수록 과일즙을 먹이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국적별로는 베트남 주부들은 84.4%가 미음이나 죽을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먹인

것으로 나타나, 필리핀(62.5%)이나 일본(66.7%), 기타(64.3%) 국적의 주부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주부들은 미음이나 죽(50.0%) 및 과일즙(50.0%)을 처음 먹인 식품으로 비율이 같게 나타났으나, 고졸(79.6%)과 고졸 미만(62.5%)의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미음이나 죽을 이유식 시작 시 많이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로 처음 먹인 식품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국내 주부들의 경우 Kim(1992)의 연구에서는 과일즙이 77.9%, Woo(2001)의 연구에서는 과일즙이 52%로 높게 조사되었고, Lee(2002)의 연구에서는 과일류(과일즙) 41.3%, 미음·죽이 32.2%, 시판이유식이 24%, 기타1.85%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일반 주부들은 과일즙을 가장 처음 먹인 것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시어머니 등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이유식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 중 할머니가 조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사람들

<Table 5> Choice of first solid fruit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fruit N(%)					$\chi^2(p)$
		Apple	Banana	Grape	Other	Total	
Age of mother	20~25 years	17(50.0)	12(35.3)	0	5(14.7)	34(100.0)	8.272 (.219)
	25~30 years	16(55.2)	7(24.1)	4(13.8)	2(6.9)	29(100.0)	
	30 years and over	13(68.4)	4(21.1)	1(5.3)	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9(59.4)	7(21.9)	2(6.3)	4(12.5)	32(100.0)	9.065 (.431)
	Philippine	10(41.7)	8(33.3)	3(12.5)	3(12.5)	24(100.0)	
	Japanese	9(75.0)	2(16.7)	0	1(8.3)	12(100.0)	
	other	8(57.1)	6(42.9)	0	0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1(68.8)	2(12.5)	1(6.3)	2(12.5)	16(100.0)	6.792 (.341)
	high school	27(50.0)	20(37.0)	3(5.6)	4(7.4)	54(100.0)	
	university	8(66.7)	1(8.3)	1(8.3)	2(16.7)	12(100.0)	
Total		46(56.1)	23(28.0)	5(6.1)	8(9.8)	82(100.0)	

<Table 6> Choice of first solid vegetables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vegetables N(%)					$\chi^2(p)$
		Carrot	Pumpkin	Spinach	Other	Total	
Age of mother	20~25 years	11(32.4)	6(17.6)	13(38.2)	4(11.8)	34(100.0)	7.662 (.264)
	25~30 years	10(34.5)	8(27.6)	6(20.7)	5(17.2)	29(100.0)	
	30 years and over	5(26.3)	7(36.8)	2(10.5)	5(26.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4(43.8)	7(21.9)	8(25.0)	3(9.4)	32(100.0)	16.813* (.048)
	Philippine	3(12.5)	11(45.8)	6(25.0)	4(16.7)	24(100.0)	
	Japanese	4(33.3)	1(8.3)	2(16.7)	5(41.7)	12(100.0)	
	other	5(35.7)	2(14.3)	5(35.7)	2(14.3)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8(50.0)	4(25.0)	1(6.3)	3(18.8)	16(100.0)	11.197 (.082)
	high school	15(27.8)	11(20.4)	19(35.2)	9(16.7)	54(100.0)	
	university	3(25.0)	6(50.0)	1(8.3)	2(16.7)	12(100.0)	
Total		26(31.7)	21(25.6)	21(25.6)	14(17.1)	82(100.0)	

*p<.05,

의 권유를 많이 받고 있어 전통적 이유식 방법 중 하나인 죽이나 미음을 처음 먹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처음 먹인 과일

영유아에게 처음먹인 과일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과가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나나가 28.0%, 포도가 6.1%, 딸기등 기타 과일이 9.8%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과를 가장 처음 먹인 주부들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바나나나 기타과일을 먹인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일본 주부들의 경우 사과를 먹인 응답자가 75.0%로 다른 국적의 주부들에 비해 높은 반면, 기타 국적의 주부들은 바나나를 먹이는 비율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68.8%)과 대졸 이상(66.7%)의 주부들이 고졸 주부들(50.0%)에 비해 사과를 처음 먹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처음 먹인 과일의 종류로 사과 56.2%, 귤이 20.7%, 바나나 7.9%로 조사되었고, Kim(2009)

의 연구에서도 사과>바나나>딸기>오렌지>토마토>포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에서도 사과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바나나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열대과일이 풍부하고 더욱이 바나나 등은 친숙한 먹을거리이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용이하여 쉽게 접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파악된다. 또한 과일은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하며 종류에 따라 먹이는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해야 하므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처음 먹인 채소

영유아에게 처음 먹인 채소는 <Table 6>와 같다. 당근이 31.7%, 호박과 시금치가 25.6%, 기타가 12.2%, 배추가 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5세 미만은 시금치(38.2%)를, 25~30세 미만은 당근(34.5%)을, 30세 이상은 호박(36.8%)을 주부들이 가장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시금치를, 연령층이 높을수록 호박을 유아들에게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주부들은 특히

<Table 7> Choice of first solid meat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meat N(%)					$\chi^2(p)$
		Beef	Chicken	White fish meat	Other	Total	
Age of mother	20~25 years	13(38.2)	10(29.4)	9(26.5)	2(5.9)	34(100.0)	4.953 (.550)
	25~30 years	9(31.0)	11(37.9)	6(20.7)	3(10.3)	29(100.0)	
	30 years and over	9(47.4)	2(10.5)	6(31.6)	2(10.5)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4(43.8)	9(28.1)	5(15.6)	4(12.5)	32(100.0)	7.702 (.564)
	Philippine	7(29.2)	6(25.0)	8(33.3)	3(12.5)	24(100.0)	
	Japanese	4(33.3)	3(25.0)	5(41.7)	0	12(100.0)	
	other	6(42.9)	5(35.7)	3(21.4)	0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43.8)	6(37.5)	1(6.3)	2(12.5)	16(100.0)	6.540 (.365)
	high school	19(35.2)	16(29.6)	15(27.8)	4(7.4)	54(100.0)	
	university	5(41.7)	1(8.3)	5(41.7)	1(8.3)	12(100.0)	
Total		31(37.8)	23(28.0)	21(25.6)	7(8.5)	82(100.0)	

당근(43.8%)을, 필리핀 부부들은 호박(45.8%)을, 일본 주부들은 배추등 기타 채소(41.7%)를 상대적으로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영유아들에게 처음 먹인 채소 종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 학력 층의 경우 당근(50.0%), 고졸은 시금치(35.2%)를, 대졸 이상은 호박(50.0%)을 유아들에게 처음 많이 먹이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당근이 40.9%, 시금치 37%, 양배추 21.5%순으로 조사되었고, 최근 Kim(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브로콜리>당근>호박>시금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호박의 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과 지역특산물임을 감안할 때 구하기 쉬운 식품이므로 조사되었다.

(3) 처음 먹인 육류

영유아에게 처음 먹인 육류는 <Table 7>과 같다. 쇠고기가 37.8%, 닭고기가 28.0%, 흰 살 생선이 25.6%, 돼지고기 등 기타 육류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돼지고기로 응답하였다.

연령층별로는 30세 이상 연령층(47.4%)과 25세 미만 연령층(38.2%)은 쇠고기를 많이 먹였으나, 25~30세 연령층 주부들은 닭고기(37.9%)를 상대적으로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43.8%)과 기타 국적(42.9%) 주부들은 쇠고기를 처음 이유식으로 많이 먹였고, 일본(41.7%)과 필리핀(33.3%) 주부들의 경우 흰 살 생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주부들은 쇠고기(43.8%)와 닭고기(37.5%)를, 대졸 이상 주부들은 쇠고기(41.7%)와 흰 살 생선(47.7%)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부들의 연구에서는 쇠고기 50.8%, 생선 39.7%, 닭고기 6.9%, 돼지고기 0.5%순으로 조사되었다(Kim 2001).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닭고기를 처음 먹인 경우가 국내 주부들보다 높았으며 골고루 크게 차이 없이 먹인 것으로 조

사 되었다.

4) 이유식 제공형태

이유식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아들에게 먹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다. 직접 만들어 먹인 주부들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만든 것과 시판 이유식을 혼합하여 먹인 주부들이 45.1%, 시판 이유식을 먹인 주부들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직접 만들어 먹인 주부들이 많았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직접 만든 이유식과 시판 이유식을 혼용하여 먹인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국적별로는 일본 주부들 대부분(83.3%)은 직접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이유식을 먹인 반면, 베트남(50.0%)과 필리핀(58.3%) 주부들의 경우 직접 만든 이유식과 시판 이유식을 혼용하여 먹인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들어서 먹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 주부들의 경우 시판 이유식만을 먹인 비율이 18.8%로 다른 학력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Pang 등(1987)의 연구에서는 시판이유식 사용이 47.5%, Kim(1992)의 연구에서는 시판이유식이 20% 가정식과 시판식 겸용이 53.6%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시판 이유식만을 사용한 경우 14.9%, 시판과 직접 만든 이유식 겸용은 52.0%이며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는 시판이유식과 직접 만든 것을 함께 겸용하는 경우가 46.3% ‘시판이유식만’ 22.2% ‘직접 만든 것만’ 19.4%를 나타냈고, 직업이 없는 경우 ‘시판 이유식과 직접 만든 것 겸용’이 55.0%, ‘직접 만든 것’ 26.4%, ‘시판이유식만 사용’ 10.9% 순이었다. 또한 Kim 등(1997)의 연구결과에서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지지 않은 여성에서 사용

<Table 8> Preparation of baby food

Category		Preparation of baby food N(%)				$\chi^2(p)$
		Home made	Commercial product	Combination	Total	
Age of mother	20~25 years	15(44.1)	2(5.9)	17(50.0)	34(100.0)	1.156 (.885)
	25~30 years	15(51.7)	1(3.4)	13(44.8)	29(100.0)	
	30 years and over	11(57.9)	1(5.3)	7(36.8)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4(43.8)	2(6.3)	16(50.0)	32(100.0)	13.326* (.042)
	Philippine	8(33.3)	2(8.3)	14(58.3)	24(100.0)	
	Japanese	10(83.3)	0	2(16.7)	12(100.0)	
	other	9(64.3)	0	5(35.7)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6(37.5)	3(18.8)	7(43.8)	16(100.0)	8.670 (.070)
	high school	28(51.9)	1(1.9)	25(46.3)	54(100.0)	
	university	7(58.3)	0	5(41.7)	12(100.0)	
Total		41(50.0)	4(4.9)	37(45.1)	82(100.0)	

<Table 9> Information sources about baby foods

Category		Information Sources N(%)					Total	$\chi^2(p)$
		friend or acquaintance	mass media	books on child rearing	hospital, health clinic, etc	other		
Age of mother	20~25 years	26(76.5)	3(8.8)	1(2.9)	2(5.9)	2(5.9)	34(100.0)	20.341** (.009)
	25~30 years	14(48.3)	7(24.1)	2(6.9)	3(10.3)	3(10.3)	29(100.0)	
	30 years and over	7(36.8)	2(10.5)	7(36.8)	2(10.5)	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9(59.4)	4(12.5)	2(6.3)	3(9.4)	4(12.5)	32(100.0)	35.968*** (.000)
	Philippine	16(66.7)	3(12.5)	1(4.2)	3(12.5)	1(4.2)	24(100.0)	
	Japanese	5(41.7)	0	7(58.3)	0	0	12(100.0)	
	other	7(50.0)	5(35.7)	0	1(7.1)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6(37.5)	3(18.8)	1(6.3)	2(12.5)	4(25.0)	16(100.0)	18.711* (.016)
	high school	36(66.7)	5(9.3)	6(11.1)	5(9.3)	2(3.7)	54(100.0)	
	university	5(41.7)	4(33.3)	3(25.0)	0	0	12(100.0)	
Total		47(57.3)	12(14.6)	10(12.2)	7(8.5)	6(7.3)	82(100.0)	

*p<.05, **p<.01, ***p<.001

하는 이유식의 종류를 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직접 만든 이유식을 이유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48.8%)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 분유회사 이유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분유회사 이유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직장 여성들의 학력이 유의하게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든 이유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주부들과 비교하면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고 직업의 유무에서 거의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먹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는 흥미로운 결과로 조사되었다.

5) 이유식 정보 획득 경로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Table 9>와 같다. 친구나 주변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

는 주부들이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14.6%, 유아관련 책을 통해서가 12.2%, 보건소나 병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각각 8.5%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친구나 주변사람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고, 3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유아관련 책을 통해서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36.8%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별로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1). 국적별로는 특히 일본 주부들의 경우 유아관련 책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58.3%로 베트남(6.3%)이나 필리핀(4.2%) 주부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베트남(59.4%)이나 필리핀(66.7%) 주부들은 주로 친구나 주변사람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국적별 이유식

<Table 10> Reason for continuing solid food consumption

Category		Reason for continuing solid food consumption N(%)					Total	$\chi^2(p)$
		Nutrition	Development of dietary habits	Teething	Ffeeding of foods other than milk	Lack of milk		
Age of mother	20~25 years	20(58.8)	4(11.8)	2(5.9)	4(11.8)	4(11.8)	34(100.0)	16.704* (.033)
	25~30 years	18(62.1)	7(24.1)	3(10.3)	0	1(3.4)	29(100.0)	
	30 years and over	7(36.8)	10(52.6)	0	1(5.3)	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22(68.8)	3(9.4)	2(6.3)	3(9.4)	2(6.3)	32(100.0)	29.218** (.004)
	Philippine	13(54.2)	3(12.5)	2(8.3)	2(8.3)	4(16.7)	24(100.0)	
	Japanese	3(25.0)	9(75.0)	0	0	0	12(100.0)	
	other	7(50.0)	6(42.9)	1(7.1)	0	0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2(75.0)	2(12.5)	1(6.3)	1(6.3)	0	16(100.0)	6.985 (.538)
	high school	27(50.0)	14(25.9)	4(7.4)	4(7.4)	5(9.3)	54(100.0)	
	university	6(50.0)	5(41.7)	0	0	1(8.3)	12(100.0)	
Total		45(54.9)	21(25.6)	5(6.1)	5(6.1)	6(7.3)	82(100.0)	

*p<.05, **p<.01

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학력별로는 고졸 주부들의 경우 66.7%가 주변사람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 중졸 이하(37.5%), 대졸 이상(41.7%) 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졸 이상 주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아관련 책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25.0%)이 고졸(11.1%)과 고졸 미만(6.3%)의 부모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이유식에 대한 정보나 지식 습득원은 Kim(2001)의 연구에서 육아 잡지나 서적이 26.4%로 가장 많았고 소아과 의사 5%, 육아상담 간호사가 0.3%로 나타났으며, Hwang(2002)의 연구에서는 서적이 36.3%, 대중매체 32.9%로 가장 많았고, 의사·약사·영양사 등은 9.4%로 나타났다. Lee(2007)의 연구에서는 서적이 43.8%, 주변사람 28.3%, 인터넷 19.4%, 매스미디어(TV, 라디오, 신문, 잡지)가 6.6%, 병원 1.9%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연구되었다.

우리나라 젊은 주부들의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가 인터넷과 서적 등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서적이거나 매체, 인터넷보다는 시어머니, 같은 나라 친구, 이웃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출산 전부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3. 이유식에 대한 인식

1) 이유식 실시 목적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생각하는 이유식을 실시하는 목적은 <Table 10>과 같다. ‘영양보충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주부들이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25.6%, ‘모유나 분유의 양이 부족해서’가 7.3%, ‘이가 나기 때문’과 ‘모유나 분유이의 것을 먹이기 위해서’가 각각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주부들과 비슷한 결과인데, Jeon 등(1993)의 연구결과에서 이유지식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이 ‘영양을 보충해 주기위해 주는 음식’이라고 응답하였고, Yoon & Lee (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유 보충식을 먹이기 시작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등 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영양적인 이유에서 이유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주부와 국내 주부들 모두 이유식의 역할을 영양학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영유아 보전에 대한 교육이 영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온 영향이라고 사료 된다(Jeon 등 1993).

연령층별로는 25세 미만(58.8%)과 25~30세 미만(62.1%) 주부들의 경우 영양보충을 위해 이유식을 실시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30세 이상 주부들의 경우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응답자가 52.6%로 나타나, 연령층별로 이유식 실시 목적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국적별로는 베트남(68.8%)과 필리핀 주부들의 경우 영양보충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응답자(54.2%)가 많은 반면, 일본 주부들은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응답자가 75.0%로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이유식 실시 목적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영양보충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주부들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의 근본 목적은 아기의 발달에 따라 고형음식을 소

<Table 11> Responses to nutritional elements needed by children

Category		Responses to nutritional elements needed by children N(%)					$\chi^2(p)$
		Calcium	Iron	Vitamins	Protein	Total	
Age of mother	20~25 years	5(15.2)	15(45.5)	9(27.3)	4(12.1)	33(100.0)	14.177* (.028)
	25~30 years	12(41.4)	6(20.7)	7(24.1)	4(13.8)	29(100.0)	
	30 years and over	2(10.5)	13(68.4)	3(15.8)	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0(32.3)	11(35.5)	6(19.4)	4(12.9)	31(100.0)	21.885** (.009)
	Philippine	6(25.0)	7(29.2)	8(33.3)	3(12.5)	24(100.0)	
	Japanese	0	12(100.0)	0	0	12(100.0)	
	other	3(21.4)	4(28.6)	5(35.7)	2(14.3)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5(33.3)	3(20.0)	6(40.0)	1(6.7)	15(100.0)	7.596 (.269)
	high school	11(20.4)	25(46.3)	10(18.5)	8(14.8)	54(100.0)	
	university	3(25.0)	6(50.0)	3(25.0)	0	12(100.0)	
Total		19(23.5)	34(42.0)	19(23.5)	9(11.1)	81(100.0)	

*p<.05, **p<.01

개하고 다양한 맛과 질감의 식품을 경험시킴으로써 아기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유식 실행을 크게 영양, 훈련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다(정 2005). 특히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학력자와 지방 변두리 지역 거주자들로서 앞으로는 영양적인 보충만을 위한 이유식교육과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월령에 알맞은 다양한 식품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철분이 부족하다는 응답 42.0%, 칼슘과 비타민이 각각 23.5%, 단백질이 11.1%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여, 많은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철분임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분의 경우 출생당시 모체로부터 체내 저장하고 있어 생후 3~4개월까지는 다른 철분 공급 없이도 모유만으로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체내 저장량이 거의 다 소모되므로 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이 필요한 영양소이다(김 등 2001). 이유시기를 넘겨서 다양한 보충음식을 섭취하지 못할 시에는 1~2세 유아에게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하였으며(Sultan & Zuberi 2003), 두뇌발달시기인 영유아기의 철분결핍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Roncagliolo 등, 1998).

연령층별로는 30세 이상 주부들의 경우 철분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잘 알고 있는 응답자(68.4%)가 많았으나 25~30세 주부들의 경우 칼슘(41.4%)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잘 못 알고 있는 응답자(45.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5). 국적별로는 일본 주부들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철분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잘 알고 있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주부들은 각각 35.5%와 29.2%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리핀 주부들의 경우 가장 많은 33.3%가 비타민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철분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잘 알고 있는 주부들이 많았고, 고졸 미만의 저학력 주부들의 경우 비타민(40.0%)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와 많이 함유되어있는 식품, 그 식품을 이유식에 이용하는 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의 공급으로 아기의 성장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3) 이유식 양념

이유식의 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어른보다 약간 싱겁게 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잘못 알고 있는 주부들이 5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잘 알고 있는 주부들은 33.3%였으며,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넣는다(11.1%)와 어른들과 똑같이 간을 한다(3.7%) 등 잘 못 알고 있는 주부들도 소수 있었다.

연령층별로는 30세 이상 주부들이 30세 미만의 주부들에 비해 이유식이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잘 알고 있었으며(p<.01), 국적별로는 일본인 주부들(63.6%)이 베트남(34.4%)과 필리핀(20.8%) 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력별로는 학력 층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유식에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학력이 높은 결혼이민자 주부들도 이유식에 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소아 영양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이유식에 염분과

<Table 12> Choice of baby food seasoning

Category		Seasoning choice N(%)				Total	$\chi^2(p)$
		None	A little sugar or salt	Same as for adults	A little blander than for adults		
Age of mother	20~25 years	9(26.5)	3(8.8)	0	22(64.7)	34(100.0)	23.006** (.001)
	25~30 years	8(28.6)	2(7.1)	0	18(64.3)		
	30 years and over	10(52.6)	4(21.1)	3(15.8)	2(10.5)		
Nationality	Vietnamese	11(34.4)	2(6.3)	0	19(59.4)	32(100.0)	19.563* (.021)
	Philippine	5(20.8)	3(12.5)	3(12.5)	13(54.2)	24(100.0)	
	Japanese	7(63.6)	3(27.3)	0	1(9.1)	11(100.0)	
	other	4(28.6)	1(7.1)	0	9(64.3)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43.8)	1(6.3)	0	8(50.0)	16(100.0)	19.757*** (.003)
	high school	17(32.1)	6(11.3)	0	30(56.6)	53(100.0)	
	university	3(25.0)	2(16.7)	3(25.0)	4(33.3)	12(100.0)	
Total		27(33.3)	9(11.1)	3(3.7)	42(51.9)	81(100.0)	

*p<.05, **p<.01

<Table 13> Education topic desired by mothers

Category		Desired education topic N(%)				Total	$\chi^2(p)$
		Food preparation and selection of ingredients	Appropriate feeding and methods	Age appropriate staging	Other		
Age of mother	20~25 years	18(52.9)	13(38.2)	2(5.9)	1(2.9)	34(100.0)	2.176 (.903)
	25~30 years	13(44.8)	11(37.9)	3(10.3)	2(6.9)	29(100.0)	
	30 years and over	10(52.6)	6(31.6)	1(5.3)	2(10.5)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8(56.3)	10(31.3)	3(9.4)	1(3.1)	32(100.0)	4.981 (.836)
	Philippine	12(50.0)	8(33.3)	1(4.2)	3(12.5)	24(100.0)	
	Japanese	5(41.7)	6(50.0)	1(8.3)	0	12(100.0)	
	other	6(42.9)	6(42.9)	1(7.1)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1(68.8)	3(18.8)	0	2(12.5)	16(100.0)	9.621 (.142)
	high school	22(40.7)	23(42.6)	6(11.1)	3(5.6)	54(100.0)	
	university	8(66.7)	4(33.3)	0	0	12(100.0)	
Total		41(50.0)	30(36.6)	6(7.3)	5(6.1)	82(100.0)	

설탕의 첨가는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아식의 염분 첨가가 성인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 실험보고도 있다(Kim 2001).

여러 책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약간의 소금 등을 첨가하라는 잘못된 정보도 많으며 심지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의 이유식 정보에는 조미료, 향신료, 너무 짠 것, 너무 단것, 지방이 많은 것은 피하라는 등 구체적이지 못한 설명과 이유식 만들기의 예로 든 레서피에는 황설탕 조금 첨가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 등 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이유식은 조미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유식 교육 시 알고 싶은 정보

이유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결혼 이민자 주부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Table 13>과 같다. 가장 많은

50.0%의 주부들이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및 재료 선택 방법을 알고 싶어 하였고, 다음으로 이유식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36.6%), 월령에 맞는 진행방법(7.3%), 시판 이유식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정보(6.1%) 등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및 재료 선택 방법과 이유식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층과 국적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과 대졸 이상 주부들의 경우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및 재료 선택 정보를, 고졸 주부들은 이유식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07)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유식 조리법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리의 어려움으로 시판이유식을 선택하는 결과와도 연관하여 단순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유식 만드는 방법 등의 조리교육도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인식정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현황 파악을 하여 적절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유식에 대한 교육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의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았고 연령은 20~25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25~30세 미만 순이었다. 주부들의 국적이 다양하였고, 본국에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이유식종류를 알아본 결과, 곡류죽, 과일즙, 고기와 생선류, 생우유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6~8개월 미만에 시작한 주부들이 많았고, 25세 이상의 주부들이 25세 미만 주부들에 비해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본주부들이 다른 국적 주부들보다 일찍 시작하였는데 6개월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하였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가 먹으려고 할 때 이유식을 시작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든 이유식을 먹인 비율이 높고 일본주부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이유식 교육을 받은 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유식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원으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나 주위사람들에게 정보의 대부분을 얻고 있었다.

이유식의 지식 정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영양공급을 위해 이유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유식의 간은 과 반수 이상의 주부들이 '어른보다 약간 싱겁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이유 시기는 생애주기 중 짧은 시기지만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이유식에 대한 방법과 이유식의 중요성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이유식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및 문화가 낯선 이들에게는 육아 부분 중 이유식이 아기의 월령에 따라 달라지고 식재료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존 출신국의 이유식을 파악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증가하지만 아직

은 이유식 등 육아부분의 세부적이고 단계별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정확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여성부에서는 방문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언어교육은 물론 출산, 양육지도, 관리 등 방문 지도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유식과 관련하여서는 그 자료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들 또한 이유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한국의 식문화 및 대표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어머니 또는 주변에서 주위들은 지식이 아닌 전문가의 교육, 현장견학(김치박물관, 떡, 부엌 살림관 등)을 통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 음식(출신국의 음식·식재료)을 식품구성탐에 적용해 보면서 출신국가에서 먹었던 음식·식재료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방문 지도사나 본문에 언급한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문지도사의 경우 많은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외출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이주민을 위한 인터넷 방송 또는 케이블 육아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쉽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강원도청. 2008. 결혼이민자 현황.
 김은경, 남혜원, 박명심, 명춘옥, 이기완. 2001. 생활주기영양학. 신광출판사. pp 111-155
 김주성. 2002. 아동의 건강과 영양. 학문사. pp 120-123
 여성가족부. 2005.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 pp 43-45
 정상진. 2005. 우리나라 이유식 제대로 하는 방법. 국민영양지. 28(10):26
 지영희. 2007.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20-25
 홍창의. 1997. 소아과학. 완전 개정판.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134
 Ahn HS. 1999. Nutritional Intake Levels of Korean Infa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2):22-41

- Beauchamp GK, Mennella JA. 1995. Early feeding and the acquisition of flavor preferences. In: Long term consequence of early feeding. From the 36th Nestle nutrition workshop. Nestle nutrition services, 1995:23-25
- Briley ME, Jastrow S, Vickers J, Roberts-Gray C. 1999. Dietary intake at child care centers and away: are parents and care providers working as parents or at cross-purposes. *JADA* 99:950-954
- Fomon, S.J. 1993. Recommendation for feeding normal infants. In nutrition of normal infants. Mosby, St Louis, pp 455-458
- Hwang MA. 2002. A Study of Mothers' Senses on Weaning foods and the Present State over using them. Department of Hom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pp 56-58
- Hwang YJ. 2008. Female Married Immigrants Inflow into Rural Areas and Their Adjustment Experiences.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4-5
- Jeon JH, Sohn KH, Lee YM. 1993. A study of Weaning Practice and Propositions about processed baby foods -Focused on the Seoul and Kyunggi area-. *Korean J. Soc. Food. Sci.* Vol. 9(3):61-62
- Kikafunda JK, Walker AF, Allan EF, Tumwine JK. 1998. Effect of zinc supplementation on growth and body composition of Uganda preschool children: a randomized, controlled intervention trial. *Am J Clin Nutr.* 68:161-166
- Kim KA, Lee ES, Lee YH, Shin SM, Choi KH. 1997. A Surve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Women in Taegu toward Weaning Diet for Infants. *The Yeungnam Univ. Med. J.* 14(2):377-379
- Kim MS. 2001. A Study on the Mothers'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the Infant Weaning diet.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 40-42
- Kim HJ. 1992. A Descriptive Study on Feeding and a Supply of Supplementary meal for Infant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36-40
- Kim KN, Ko SM, Kwon HJ. 2005. Weaning Practice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Reliability on Advertisements of Commercial Weaning Foods in Cheongju Area. *J. of Human Ecology* Vol. 9(2):143-154
- Kim HJ. 1993. A Study of Mother's senses on marketing weaning foods and the Present state over using them.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p 20
- Kim HH, Kim HY(A) 2009. Supplemental Feeding Status Infants at Bundang Area. *Bull. Nat. Sci., Yong-In Univ.* Vol. 14. No. 1. DEC. pp 2-7
- Kim SS. 2005. A Study on Infant Weaning Practices Based on Maternal Education and Income Level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7):1000-1007
- Lee JS, Choi KS. 2005. A Survey on Location and Weaning Practice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Attitude on Infant Nutrition in Kangwon Province,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4):373-385
- Lee SB. 2003. The Importance of Health Education Projects and the Role of Health Center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2):2
- Lee YS. 2002. A Study on Weaning Practice of Infants in Seoul and in Selected Areas of Kyung-gi Province.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52-55
- Lim YS. 200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Infant's Obesity based on Infant Feeding and Wean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pp 66-70
- Pang HG, Kim KH, Park JO, Lee SJ. 1987.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Weaning,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Association.* 30(3):41-43
- Robert SB, Heyman MB. 2000. Micronutrient shortfalls in young children's diets: common, and owing to inadequate intake both at home and at child care centers. *Nutrition Review.* 58(1):27-29
- Roncagliolo M, Garrido M, Walter T, Peirano P, Lozoff B. 1998. Evidence of altered central nervous system development in infants with iron deficiency anemia at 6 mo: delayed maturation of auditory brainstem responses. *Am J Clin Nutr.* 68:683-690
- Sultan AN, Zuberi RW. 2003. Late weaning: the most significant risk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ron deficiency anaemia at 1-2 years of age. *J Ayub Med Coll Abbottabad* 15:3-7
- Woo JH. 2001. A study on nutritional status and behavior developments of infants. 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p 22
- Yoon AR. 2007.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Instruction in Weaning Food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Instructional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pp 10-15
- Yoon US, Lee JY. 1994. The Study of Supplementary Food in Terms of Weaning.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Junior College* Vol. 14 (111-122):114-115